[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55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 www.jri.re.kr

Contents

※ 2026.11.04.(수) 기준(대상 기간 : 2026.10.28.~2026.11.03.)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 추진(2026.11.02) ····· 1
- 재정경제부, 글로벌녹색성장서밋서 K-GX 전략 제시(2026.10.29) ····· 1
- 제주도, 112억 규모 탄소중립 선도마을 2곳 공모(2026.10.28) ····· 2

▪ AI 분야 3

- 산업통상부, 구미 25조 투자 지원·제조AI 확산(2026.10.28) ····· 3
- 법원행정처, AI 허위 판례 인용 과태료 근거 검토(2026.11.02) ····· 3
- 경기도·시흥시, 시화산단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2026.10.31) ····· 4
- 부산시, 첫 AI 창업 경진대회서 11개 팀 선정(2026.11.03) ····· 4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6

▪ 탄소중립 분야 6

- 한국은행,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분석(2026.10.28) ····· 6
- 한국화학연구원, 국가임무 중심 연구체계 전면 재편(2026.11.03) ····· 6

- 한국동서발전, 2040년 온실가스 79% 감축 목표(2026.10.29) ····· 7
- 인천연구원, 에너지 분야 시민 참여 방안 제시(2026.11.02) ····· 7

▪ AI 분야 8

- 한국수자원공사, 베트남 송둥정수장에 AI 기술 수출(2026.10.28) ····· 8
- 국가철도공단, 철도학회서 AI·첨단 탐지기술 공개(2026.10.30) ····· 9
- 축산물품질평가원, AI 계란 품질평가 장비 공개(2026.10.29) ·····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한국에어로㈜, 공기압축기 국산화로 산업포장 수상(2026.11.02) ····· 10
- BYD,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으로 ESG 경영 강화(2026.10.28) ····· 11

▪ AI 분야 12

- 삼성SDS, 구미에 60MW AI 데이터센터 착공(2026.11.03) ····· 12
- LG CNS, 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 준공(2026.11.02) ····· 12
- 퓨리오사AI, 8200억원 시리즈 D 투자유치 완료(2026.10.29) ····· 13
- 메가존클라우드, KAIST와 피지컬AI 표준화 협약(2026.11.03) ····· 13
- 미국 뉴욕주, AI 챗봇 미성년자 이용 제한 입법(2026.10.29) ····· 14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 추진(2026.11.02)**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으며, 김성환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고 친환경 이동에 관한 관심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 국민 등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 - 서명서에는 평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새로 구매할 때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참여자는 누구나 탄소중립포인트 2000 포인트와 추후 전기차 구매 시 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서명 포인트는 다음 달 말 지급, 구매 포인트 기준과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 - 실천운동은 2일 기후부 및 소속·산하기관 내부 서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7일부터 대한민국 기후행동×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며, 김 장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 개개인의 전기차 전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재정경제부, 글로벌녹색성장서밋서 K-GX 전략 제시(2026.10.29)**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 축사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투자 확대 구상 등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이 부총리는 국내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제시했고,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 수송 분야 전동화를 추진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등 10대 녹색산업도 육성할 계획 -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재경부가 GGGI 한국그린뉴딜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발굴해 왔다고 설명하고 한국 주도로 구축 중인 GVCM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신뢰도 높은 크레딧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할 방침
지자체	□ **제주도, 112억 규모 탄소중립 선도마을 2곳 공모(2026.10.28)** - 제주도가 11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에너지 사용과 자원순환 등 생활 속 탄소 감축 방안을 직접 실험할 마을 2곳을 11월 공개 모집할 예정이고, 이번 사업은 생활과 자원순환, 에너지전환을 마을 단위로 결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 방안을 적용하는 방식 - 공모 대상은 제주지역 행정동과 리 단위 마을로 인구와 지역 여건, 주민 희망 사업 등을 고려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는 주민 참여 의사와 사업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본공모 선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세부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 선정 절차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 - 제주는 2024년 10월 서울 노원구, 충남 당진·보령과 함께 정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전국 4개 대상지 중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며, 올해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20억원 신규사업으로 건물·수송·에너지 분야 감축 수단을 실증하고 제주형 이행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구상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산업통상부, 구미 25조 투자 지원 · 제조AI 확산(2026.10.28)** - 산업통상부가 김정관 장관의 28일 구미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와 로봇, 방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중심의 약 25조원 규모 구미지역 기업 투자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구미·청주·포항 산업단지에 제조업 AI 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며, 이번 방문은 아홉 번째 '5극3특' 지역 현장행보 - 투자기업 간담회는 LG이노텍, SK실트론, 자화전자, 삼성전자, LIG D&A, LS전선, 삼성SDS 등 약 25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7개 기업의 전력과 기반시설, 인재양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이며, 김 장관은 LG이노텍 구미4공장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점검과 총 272억2000만원 규모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 일정도 진행 - 산업부는 '제3차 M.AX 지역 확산 콘퍼런스'에서 구미·청주·포항 산단의 맞춤형 제조 AX를 추진할 'MIN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모두 13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누적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AI 팩토리 우수사례 38개의 생산성 평균 30.1% 향상, 불량률 15.5% 감소 성과를 '산단 실증확산 트랙'으로 동일 업종 기업에 확산할 방침
	□ **법원행정처, AI 허위 판례 인용 과태료 근거 검토(2026.11.02)**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밝혔으며, 모두 36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7%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4.8%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 - 경험 사례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판례 인용 159명,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 순이며, 인용 주체는 당사자 본인 164명,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136명으로,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를 제출하거나 AI와의 대화 내용이 서면에 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함된 사례도 보고 - 대응 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15명, 판례 검증의무 부과 214명, AI 활용 사실 기재 의무 부과 212명,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 194명 순이며,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인용 자료 실재 여부 직접 확인 유도, 전자소송 사이트 AI 활용 주의사항 안내 등을 검토할 계획
지자체	□ **경기도·시흥시, 시화산단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2026.10.31)** - 경기도와 시흥시가 지난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에서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첨단기술 실증의 강점으로 활용해 시흥을 대한민국 제조 AI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조성 40년을 맞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기반에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 - 시흥시가 공모에 선정된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는 정왕어울림센터에 조성돼 GPU 서버와 로봇 학습·훈련 장비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별 기술 수요 발굴부터 교육·컨설팅, 기술검증, 현장실증까지 지원하며, 주요 실증 분야는 공정 간 자재 운반 자동화, 위험 공정 로봇 적용, 노후 제조설비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제시 - 시화산단과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는 입주기업 1만2천여개, 2024년 생산액 41조8천813억원의 제조업 집적지이나 설비 노후화와 숙련기술인 고령화가 겹친 상황이며, 시흥시는 올해 시화산단, 내년 시화·반월산단, 2028년 화성·평택 등 경기 서남부 제조벨트로 확산하고 생산량 5% 증가, 불량률 10% 감소, 가공시간 15% 단축을 목표로 제시
	□ **부산시, 첫 AI 창업 경진대회서 11개 팀 선정(2026.11.03)** - 부산시가 지난달 31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6 AI 창업 경진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열고 유망 AI 창업팀 11개 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으며, 올해 처음 열린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비·초기 창업기업 등 178개 팀이 도전해 예선을 통과한 17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개 팀이 본선에서 겨뤘고 전문가 심사로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을 선정 - 대상은 위성에 탑재된 AI가 필요한 정보를 먼저 골라 전송하는 '위성영상 궤도상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 케이엘스페이스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봉제공장에 AI 카메라를 설치해 작업자별 생산량과 지연 공정을 찾아내는 '봉제공장 AI Factory OS'의 센트로직스와 'AI 환자 아바타'로 항암치료를 모의 분석하는 오가노메디가 수상 - 부산시는 대회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수상팀에 총 700만 원 상당의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고, 부산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6개 팀에는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사업화 컨설팅을 이달부터 지원하며, 이번 대회는 부산의 9대 전략산업과 AI를 접목한 창업 모델 발굴에 초점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국은행,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분석(2026.10.28)** -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 줄이는 '선형감축'과 61% 줄이는 '조기감축' 경로를 비교했으며, 2025~2060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6~0.07%p 낮아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04%p 높아질 것으로 추산 -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기준시나리오보다 선형감축 10.2%, 조기감축 8.2% 낮아지나 초기에는 조기감축의 부담이 더 커 2035년 감소폭은 조기감축 2.5%, 선형감축 2.1%였으며,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2025~2035년 조기감축 0.26%p, 선형감축 0.22%p에서 2035~2050년 선형감축 0.57%p, 조기감축 0.40%p로 역전 - 선형감축은 저탄소 기술 개발과 보급이 늦어져 달성 시점에 충격이 집중되는 반면 조기감축은 기술 전환을 앞당겨 이후 충격을 완화한다는 분석이며, 2026~2050년 에너지 공급 부문 전환 누적 투자액은 두 경로 모두 약 840조원으로 추정되고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제조업과 발전업에 생산 위축이 집중될 전망
	□ **한국화학연구원, 국가임무 중심 연구체계 전면 재편(2026.11.03)** - 한국화학연구원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환경 규제에 직면한 국내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연구 체계를 개별 소형연구 위주에서 '국가 임무'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며, 신석민 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경영전략과 핵심과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 전략기술 중심 연구 포트폴리오 재편과 국가 기술 주권 확보를 강조 - 화학연은 2030년까지 5대 전략연구사업에 총 1498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도심형 융합 에너지 모듈 개발 244억원, 차세대 모달리티 암 치료제 개발 316억원, 항생제 내성균 대응 치료제 개발 308억원, 자동차용 규제 대응 신소재·부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개발 311억원, 인공지능(AI) 자율실험 첨단소재 플랫폼 구축 319억원을 투입하는 구조 - 올해 AI 관련 17개 연구 과제에 369억원을 집행하고 12월 원장 직속 AI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신소재 개발 주기를 60%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이고, 총 1300억원 규모 차세대 이차전지 혁신 전략연구단과 1000억원 규모 이산화탄소 자원화(CCU) 전략연구단을 총괄하며 김명환 전 LG화학 사장 등 민간 인재를 영입해 상용화 연구를 추진
	□ **한국동서발전, 2040년 온실가스 79% 감축 목표(2026.10.29)** - 한국동서발전이 '친환경·탄소중립 전략'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90% 이상 감축한다고 29일 밝혔으며, 이번 전략 개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목표를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 지난 6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전략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 강화된 정책 목표를 담아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환경부문 13개 지표를 반영해 환경관리 범위를 수자원과 생물다양성까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76%에서 상향 - 탄소중립 선도, 친환경 발전, 지역상생 환경경영의 3대 방향 아래 12대 실행과제를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8.5GW로 늘려 발전비중을 44%까지 높이고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과 LNG복합 탄소포집설비(CCUS) 고도화, 발전소 폐수 재이용량 212만 t 확대, 지역 폐자원 활용 바이오연료 사용량 20만 t 확대도 추진할 계획
지방기관	□ **인천연구원, 에너지 분야 시민 참여 방안 제시(2026.11.02)** - 인천연구원이 2일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에너지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시민 참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에너지 공급 체계 변화뿐 아니라 생활 양식과 소비, 이동 수단, 주거 등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 - 연구진은 국내외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 참여 정책과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의 시민 참여 현황과 인식을 조사했으며, 정책과 사례들을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공동체·협동조합, 교육·홍보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민 인식 조사에서는 단순한 인식 향상을 넘어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실천 편의성·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연구진은 시민 제안과 정책 환류 강화, 시민 체감형 실천 보상 확대, 생활권 공동실천과 시민 소유 확대, 교육과 행동 변화 연계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으며,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이 에너지 전환의 상징성과 잠재력이 매우 크고 시민이 참여할 접점이 다양한 도시로 활발한 시민 참여가 에너지 전환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베트남 송둥정수장에 AI 기술 수출(2026.10.28)** -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송둥정수장에서 현지 운영사인 송둥JSC와 AI 정수장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으며,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호찌민시 켄동정수장에 이은 베트남 내 두 번째 기술 수출 성과로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수장 운영 기술을 앞세운 현지 물 시장 진출 행보 - 기술이 적용되는 송둥정수장은 하루 3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하노이 핵심 급수 시설로 30만톤은 약 100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으로 평가되며, 총사업비 19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억4000만원 규모의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과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AI 기술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 - 수자원공사는 계약 체결 전날인 지난 21일 베트남 인프라 기업 비나코넥스의 계열사이자 물·환경 전문 기업인 비와신, 베트남 상하수도협회와 각각 MOU를 맺고 베트남 내 상하수도 인프라 개발 사업 전반으로 협력 영역을 넓힐 구상이며, 현지 핵심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K-물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
	□ **국가철도공단, 철도학회서 AI·첨단 탐지기술 공개(2026.10.30)** - 국가철도공단이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열리는 '2026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인공지능(AI)과 첨단 탐지기술을 활용한 철도 안전·운영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철도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공단은 전시부스에서 소음·진동 저감용 방진체결장치, AI 기반 철도신호연동 시험기 로봇, GPR-AI 융합선로하부 공동탐지시스템 등 핵심기술 3종을 소개하며, 방진체결장치는 최고 시속 250㎞ 환경에서도 진동을 3dB 이상 줄여 '2026년 철도 10대 기술상'에 선정됐고 시험기 로봇은 시험 과정을 자동화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기술 - GPR-AI 융합 공동탐지시스템은 지표투과레이더(GPR)와 AI를 결합해 선로 아래 빈 공간을 탐지하는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 제고가 기대되며, 시험기 로봇과 공동탐지시스템은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됐고, 공단은 학술대회 기간 노반과 궤도설계·시공기준 고도화 등 8개 주제의 특별세션도 운영해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
	□ **축산물품질평가원, AI 계란 품질평가 장비 공개(2026.10.29)** -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29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계란 선별·포장업체 ㈜와이제이푸드에서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장비를 공개했으며, 이곳은 지난해 장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를 처음 현장 시험 적용한 사업장으로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한 알씩 눈으로 살피던 계란 껍데기 검사를 AI 장비가 맡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금까지 잡아내는 것이 특징 - 장비는 계란을 검사부에서 회전시키며 외관 사진 4장과 투광 사진을 촬영해 외관 사진으로 껍데기 청결 상태와 결함을 A~D급으로 나누고 투광 사진으로 깨짐(파각)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며, 계란을 깨 신선도를 재는 할란 검사는 기존처럼 진행해 외관·투광·할란 결과를 종합한 뒤 묶음 전체에 1+·1·2등급을 부여하는 구조 - 검사 시간은 사람이 판정할 때보다 63% 줄어 10판 기준 30분에서 11분으로 단축됐고 코헨의 카파 통계기법으로 확인한 정확도는 0.84 이상이며, 축평원은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해 전국 11곳에 보급했고 2030년까지 52곳으로 늘려 AI 판정 비중을 2~3%에서 56.5%로 높일 계획이며 11월부터 농가·업체 대상 피드백 서비스도 시범 운영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한국에어로㈜, 공기압축기 국산화로 산업포장 수상(2026.11.02)** - 한국에어로㈜ 김왕환 대표가 공기압축기 국산화와 에너지효율 혁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산업생산성 향상과 환경보호를 주도했다는 평가로 1987년 대전에서 창립한 이후 39년간 공기압축기 분야에 전념해 외산장비 중심 시장의 국산화와 기술혁신을 주도해 왔고 26년간 50여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30여건의 특허권을 확보 - 수윤활식 '오일프리 싱글스크류 공기압축기'는 오일 없이 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공기압축기로 물을 활용해 밀봉·윤활·냉각뿐 아니라 녹방지까지 수행해 기존 오일식의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모터와 인버터의 가변속 구동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제품은 사용 현장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20~45%까지 절감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지정비(고장예측)를 도입해 설비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고객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비용절감과 환경규제 대응,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동시에 제공하며, 김 대표는 산학협력과 정부출연 연구소 협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2024년 3월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회장 취임 후 지역 회원사 수출 활성화도 지원
해외	□ **BYD,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으로 ESG 경영 강화(2026.10.28)** - 글로벌 친환경차 기업 BYD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과 함께 그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반영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으며, 2000년 출범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국제 협의체로 인권과 노동, 환경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장려 - 유엔글로벌콤팩트에는 현재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2만5천여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BYD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한 친환경차 기업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난 2022년 완성차 업체 최초로 순수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했고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모든 공정 과정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 - BYD는 지난해 460만대의 친환경차를 인도해 4천660만톤(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으며 이는 나무 약 7억7천600만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라는 설명이고, BYD 관계자는 이번 가입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밸류체인 파트너들과 협력해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언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SDS, 구미에 60MW AI 데이터센터 착공(2026.11.03)** - 삼성SDS가 경북 구미에 60M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본격화하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섰고, 지난 2일 구미시 공단동 옛 삼성전자 1캠퍼스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 -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CES 2026에서 경북도·구미시·삼성SDS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10개월 만에 착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데이터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돼 2028년 12월 준공, 2029년 3월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구미시는 전담 공무원(PM) 지정과 부시장 단장의 원스톱 지원단 구성으로 인허가를 지원 - 삼성물산과 지역 건설업체 간 협력 매칭데이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되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착공은 구미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AI·첨단산업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지역 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평가
	□ **LG CNS, 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 준공(2026.11.02)** - LG CNS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30메가와트(MW)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1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를 현지에 직접 구축한 첫 사례로,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합작법인 KMG가 지난해 발주한 건 - LG CNS는 국내에서 축적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도록 센터를 설계·구축했으며, DBO에 LG전자의 공조 시스템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더한 '원 LG' 통합 설루션으로 전력·냉각·에너지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고 완공 전 전체 수용 용량 고객 확보도 마무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재 후속 단계 설계를 진행 중이며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전체 수전용량은 400M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고,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필리핀·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넓힐 방침이며, 현신균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
	□ **퓨리오사AI, 8200억원 시리즈 D 투자유치 완료(2026.10.29)** -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대표 백준호)가 총 8200억원 규모 시리즈 D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으며, 이번 투자유치는 투자 전 기업가치 3조원을 기준으로 진행돼 투자 후 기업가치는 약 3조8000억원으로 평가됐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종 투자유치 규모를 확대한 결과 - 올해 1월 4500억~7500억원 규모를 목표로 시리즈 D 투자유치를 시작해 최종 약 8200억원으로 늘렸으며, 국민성장펀드가 3700억원을 투자해 이번 라운드의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고 한국산업은행과 네이버 등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의 후속 투자 규모는 총 1700억원 수준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및 인프라 산업 경험을 갖춘 투자자들이 함께했다는 설명 - 퓨리오사AI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2세대 AI 반도체 'RNGD(레니게이드)'의 글로벌 상용화를 확대하고 브로드컴과 협력 중인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 솔루션과 3세대 AI 가속기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며, 백준호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가 기술력과 사업 실행 역량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
	□ **메가존클라우드, KAIST와 피지컬AI 표준화 협약(2026.11.03)** - 메가존클라우드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KAIST 제조피지컬AI연구소와 '피지컬 AI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KAIST가 개발한 로봇 운영 플랫폼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기업마다 다른 로봇·설비·데이터 환경을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 피지컬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사업화에 나설 계획 - 양측은 부품·장비·AI·데이터 기업 간 기술 표준화와 공동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해 연구·실증 단계에서 검증한 기술을 다양한 제조 환경에 반복 적용할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며, 메가존클라우드는 KAIST의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카이로스 37'의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예정 -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거버넌스 분과가 추진하는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KAIST는 협력 기업을 확대해 각 기업의 기술을 카이로스 37과 연계한 통합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이주완 의장은 8000여 기업의 현장 경험과 2800여명의 AI·AX 역량을 결합해 지원하겠다고 언급
해외	□ **미국 뉴욕주, AI 챗봇 미성년자 이용 제한 입법(2026.10.29)** - 미국 뉴욕주가 미성년자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AFP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픈AI의 챗GPT 같은 챗봇 운영업체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AI 인터페이스의 특정 기능과 표현을 제한해야 하며, AI가 인간 또는 친구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법의 골자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챗봇이 자신을 인간이나 살아 있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개인적·전문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권위 있는 인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응답도 금지되고 AI가 생성한 내용을 개인적 의견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역시 제한 - 호컬 주지사는 챗봇이 미성년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보유하는 일도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다른 주도 규제법을 마련했지만 뉴욕주 법은 규제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기술업계 단체 '테크:NYC'는 표현이 모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하다고 비판한 반면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아동 AI 안전 법안이라고 평가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